

## 3월의 아침

한정빈(평택교회)

나는 열두 달의 계절 중 3월을 그중에서도 3월의 아침을 가장 사랑한다. 이 취향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변함이 없다. 새로운 한해가 다시 시작되면 1,2월은 모두가 새로움을 준비한다. 찾아오는 3월의 싱그러움과 따듯함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좋다. 그리고 3월은 나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추억이 가장 길게 남아 있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나의 집은 산 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큰 건물들의 그림자가 드리어지지 않았다. 우리 방에 있는 큰 창문을 통해 밝고 따듯한 3월의 햇빛은 빠짐없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햇살이 서서히 방으로 들어 올 때면 저절로 눈이 떠지곤 했다. 나의 잠자리는 거의 대부분 가운데였다. 나의 왼쪽에는 언니가 오른쪽에도 언니가 함께 자고 있었다. 두 언니들은 거의 잠들기 직전까지 싸우거나 놀거나 둘 중 하나였기에 엄마는 항상 나를 가운데 재웠다. 아침잠이 없던 나는 언제나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 엄마 아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조금은 무서운 아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엄마의 옆구리에 쪽 들어가곤 했다. 그때는 내 작은 몸이 엄마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것이고 완벽히 숨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빠에게 들키지 않게 부모님 방의 문지방만 넘으면 맘 편히 엄마 품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내가 집 안을 쭈시고 다녀 모두가 깨면 3월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아직 유치원을 가지 않는 나는 바쁘게 준비하는 아빠와 언니들을 보며 엄마의 아침식사 준비를 도왔다. 현관에 서서 언니들과 나, 엄마의 “다녀오세요.”라는 배웅을 받으면 아빠의 얼굴은 세상 밝아진다. 아빠는 출근하는 자신을 언제나 배웅해 주기를 바라셨다. 아마 가족이라는 힘이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나 보다. 그 후 언니들도 유치원으로 떠나면 엄마와 나의 시간이 시작된다. 모두가 떠나 고요해지면 나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찾아 누워 있곤 했다. 엄마가 창문을 열면 새싹을 닮은 싱그러운 초록빛 바람이 들어와 얼굴을 쓸었다. 아침공기를 마시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도와줄게요.”라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을 도왔다. 옛날이야기 할 때면 내가 엄마를 도왔던 추억을 엄마는 항상 이야기 한다. 이 말을 하던 내가 꽤나 귀여웠나 보다.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면 엄마는 나를 꼭 안아 나의 등을 두드리며 아직 졸리지 않은 나를 재우시려 꽤나 노력하셨다. 조금 뒤척이다가 엄마 품속에 나의 몸이 꼭 맞게 들어가고 가장 편한 자세를 찾으면 바로 꿀아 떨어졌다. 햇살 아래서 상큼하고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엄마와 낮잠을 자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2시쯤 일어나면 엄마는 나를 위해 계란 젖은 빵, 지금에 와서 알게 된 이름인 프랜치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다. 엄마는 건강을 중요시하며 향신료나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 체계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맛있으면 장땡이었고 그 점은 어린 세 자매에게 단연 최고였다. 내 얼굴만 한 접시에 계란 3개와 우유를 넣고 설탕을 듬뿍 넣어 계란물을 만드셨다. 어린 나도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엄마는 새끼손가락으로 계란물을 찍어 맛보시곤 설탕을 듬뿍 더 넣곤 했다. 식빵을 계란물에

푹 담근 후 마가린을 바른 프라이팬에 넣고 구우면 엄마표 프랜치 토스트가 완성되었다.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달았다. 겉은 계란으로 굳어져 있고 안은 촉촉하던 프랜치 토스트, 설탕 먹은 우유 계란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 안았다. 그건 엄마의 특기였고 나는 아직도 엄마의 프랜치 토스트를 가장 좋아한다. 언니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편안하고 나른한 시간은 끝이 나지만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이 시작된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해질 녘과 함께 아빠가 돌아왔다. 현관문으로 달려 나가 “다녀오셨어요.”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가슴에 나를 빈틈없이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다.

이게 나의 가족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그때의 추억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 행복한 감동으로 벽차오른다. 부모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순수했고 진심이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나를 이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아빠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직은 한국어가 자신의 마음에 와 닿지 않던 젊은 시절의 엄마는 조금 더 자신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일본어로 “あいしてる”(아이시테루)라고 말했다. 두 말은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틀림없이 똑같은 마음이었다.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말을 통해 나는 더 넓은 사랑을 배웠다. 아빠를 통해 한국을 엄마를 통해 일본을 사랑하고 두 나라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 사랑은 깊었다. 그들이 주는 사랑에는 그들의 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었다. 그 사랑이 오롯이 부모님 자신들만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들이 나에게 준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부모님은 하늘부모님 아래 축복을 받으셨다. 아빠는 엄마를 끔찍이도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을 받은 엄마는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 하늘의 사랑으로 뿔뿔 뭉쳐진 엄마는 항상 밝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고 태어난 2세인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다.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늘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는 성장했다. 나는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이것을 더 넓고 깊이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